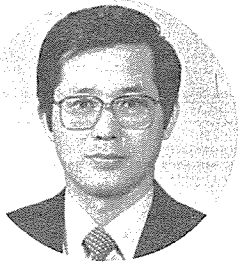


해양연구소

종합조사선 건조 잠수정 탐사 본격화



許亨澤
(해양연구소 소장)

지난 86년은 해양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자체건물과 캠퍼스를 지어 移轉, 定着 함으로써 研究所 발전의 轉機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다.

京畿道 安山市의 研究·學園團地에 자리잡은 본 연구소는 26,000평의 부지에 1차로 총건평 4,500평 규모의 研究·實驗棟 건립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추진, 현재 사용중인 本館棟 및 제1 연구동에 이어 제2 연구동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제2 연구동은 海洋工學·器機分野의 研究·實驗施設을 갖추게 되어 앞으로 이 분야의 研究개발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教育訓練棟과 기타 研究 부대시설을 새로 착공, 조경공사와 함께 年內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로써 본 연구소는 쾌적한 研究환경

과 실험시설을 구비한 국내 海洋開發研究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게 될 것이다.

研究所의 新築, 移轉과 더불어 實驗施設面에서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研究事業이 活性化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는 연구소의 밝은 장래를 약속해주는 값진 수확으로서 지난해에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할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승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묘년 올해에는 연구기능의 확충과 내실화로 前年度의 결실을 더욱 살찌우고, 이를 연구소 長期發展基盤 구축에 이어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에 추진할 力點事業으로서 새로운 綜合 海洋調查船 건조사업과 국내 최초로 건조되어 활용에 착수케 될 有人潛水艇 “海洋250”에 의한 탐사활동, 潛水艇 母船 건조사업, 우수 研究員 확보, 그리고 長期研究方向의 정립 등을 꼽을 수 있다.

◇有人잠수정 “해양 250”에 의한 탐사활동

國產潛水艇 1號인 “海洋 250”은 해저 250m까지 潛航할 수 있는 3인승 잠수정으로 중량 9.5톤, 길이 7m, 높이 2.6m, 너비 2.4m이며 海底調査에 필요한 스틸 및 TV카메라, 水中통신장치, 기계팔 등 최신편비를 갖추고 있다.

평균속도 1노트(최대속도 3노트)로 12시간 동안 潛航할 수 있는 이 잠수정의 확보로 우리나라도 이제 잠수정 보유국으로서 해양탐사의 새로운 章을 열게 되었다.

海洋生物, 地質 및 海底環境특성조사, 海底구조물탐사와 教育·弘報資料의 제작을 위해 肉眼觀察, 標品採取, 계측,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동 잠수정은 이미 浦項 東北方의 東海海域에서 시운전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運航技術을 확립, 실제 활용에 들어가기 위한 제반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沿近海는 물론 水深 6,000m정도의 深海海域까지 조사범위를 廣域, 深化시킬 수 있으며

資源開發 중심의 綜合 精密調查를 가능케 해 줄 1,000톤급 종합해양조사선의 건조는 현재 당연 구소 최대의 重點課題로서 올해에 細部設計에 들어가게 되며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건조에 착수, 오는 88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잠수정 母船 건조사업

이와 아울러 潛水艇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그 탑재운송과 제반 普及支援을 할 수 있는 母船을 필요로 하게되는 바, 이를 위해 300톤급의 潛水艇 母船建造를 추진, 역시 8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할 계획.

이들 調査船의 확보 및 潛水艇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海洋調査·研究能力을 획기적으로 深化, 廣大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海洋科學技術發展에도 직결되는 基本要件인 만큼 건조 및 운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수한 研究·技術人力 확보

우수 研究·技術人力의 확보를 위해서는 在外 韓國人 科學者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각종 國際協力事業 窓口를 통한 學術·研究交流와 海外訓練에도 비중을 두어 先進技術의 移轉을 도모할 방침이다.

87년은 특히 제6차 經濟社會開發 5個年 計劃이 시작되는 첫 해인 동시에 2千年代 科學技術長期發展計劃의 일환으로 海洋科學技術分野의 계획도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들어가는 해로서 의의가 깊다.

海洋分野의 國家目標은 海洋資源開發(生物資源, 에너지, 鑛物資源 등)을 통해 안정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海洋空間 이용을 통해 海洋指向의 國土開發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海洋強國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다고 要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도 이러한 국가목표에 입각하여 장기연구추진방향을 設定하고 技術的 가능성과 기대효과가 큰 과제들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長期研究方向의 정립

87년도의 重點推進課題로는 이미 수행중인 韓國海域 綜合海洋資源圖 작성연구 海·漁況에보 기술개발, 海難·災害예보시스템 연구, 海難·災害예보시스템 연구, 海岸構造物 適正設計條件의 결정기법의 體系化연구 등과 더불어 新規豫定課題로서 生理活性物質 개발·응용연구, 新品種 魚類 개발, 沿近海底 골재 및 有用鑛物 개발연구, 沿岸環境 보전기술 개발연구, 海洋油類汚染 防除를 위한 化學的·微生物學的 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海外眞珠양식기술 개발, 연어·송어류 양식기술 개발, 海洋技術개발과 산업화 전략연구, 韓國海峽에서의 漁流構造연구, 螢光測定을 이용한 海洋의 1차 생산성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적극 추진

또한 불란서 국립해양연구소, 캐나다 Bedford 해양연구소, 일본 동경대 해양연구소, 파키스탄 해양연구소, 미국 하와이대학 및 국립해양기상청(NOAA) 등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연구·기술교류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국제공동연구는 海洋學에의 遠隔探查技術 應用, 潛水艇의 效果的 活用을 위한 研究協力, 海洋食糧資源 이용개발, 김양식기술 연구협력, 海洋汚染防止 연구협력, 黃海 확립 조사사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 밖에 基本研究事業의 수행에 있어서는 研究內容 및 結果가 特定研究, 또는 中·長期課題로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여 수행코자 하며, 研究人力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Task Force Team을 구성,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研究管理의 측면에서는 既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評價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 密度있는 연구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